

# 고하 송진우의 항일민족독립운동

## -3·1운동과 관련하여-

이 민 원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연구소장)

1. 머리말
2. 고하 송진우의 민족의식 형성 과정
3. 송진우의 항일민족독립운동-3·1운동의 기획과 중앙학교
4.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민족과 개인의 주권 선언
5. 맺음말

### 1. 머리말

고하 송진우(1890.05.08.(음)~1945.12.30)는 일제하 국내에서 교육, 언론, 사회, 문화 방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항일민족독립운동을 선도해 간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이다.<sup>1)</sup> 그 뿐 아니라 8.15 해방 직후 미군정 하에서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여러 인물들이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무대 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민당의 수석 총무로 활동하였으나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속에 비운을 맞은 첫 희생자이기도 하다.<sup>2)</sup>

그의 일생은 항일독립운동과 직결되었고, 해방 이후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건국운동과 직결되었다. 그의 일생에 걸친 항일민족독립운동은 청소년 시절 부친 송훈과 성리학을 가르친 스승 기삼연, 김직부 등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주요한 사상적 바탕을 형성하였고, 거기에 김성수, 김병로, 현준호, 홍명희, 장덕수, 백관수, 현상운, 최남선, 이광수 등은 물론 기독교계의 조만식, 천도교계의 최린 등 국내와 일본에서 인연을 맺은 친우들과의 교류, 나아가 그가 국내외에서 접한 서구의 신사상과 세계정세에 관한 일본 내 저명인사들의 강연, 그리고 그에 대한 사색과 벗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 송진우에 대해서는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에서 간행한 『巨人的 숨결』(이야기 숲, 2023)과 『獨立을 향한 執念: 고하 송진우 일대기』, 이야기 숲, 2023 등에서 고하 송진우의 글과 논설, 그리고 고하 송진우를 직접 다룬 글이나 그에 관한 자료들을 모은 것이 있어 많은 도움을 준다. 그 외 주요한 논저로는 玄相允, 「3·1운동 발발의 개요」, 『思想界』 1963년 3월호; 崔炯鍊, 「三·一운동과 中央學校」,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313-324쪽; 심지연, 「고하 송진우」, 『한국현대인물론』 1, 을유문화사, 1987; 김학준, 『고하 송진우 평전 : 민족민주주의 언론인 정치가의 생애』, 동아일보사, 1990;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해안, 2023; 김형석,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동문선, 2024 등이 많은 도움이 된다.

2) 신복룡, 『해방정국의 풍경-인물로 돌아보는 대한민국 현대사』, 중앙books, 2024, 5-6장을 참조.

그의 생애 중 필자가 가장 주목해 보게 된 장면 하나는 중앙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행한 3·1운동의 기획과 실행 과정이다. 물론 그 이전 일본 유학 당시 재일 유학생의 결속을 위한 학생회 조직과 운영, 『학지광』 등 학회지를 통한 재일유학생들의 민족혼 고취 활동, 귀국 후 동아일보 사장으로서 수행한 항일민족언론 활동과 한민족의 민족혼을 북돋우기 위한 제반 노력, 이어 8.15 해방 직후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헌신 등도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 평생 민족의 독립과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한 점에서 그의 활동은 대부분 항일독립운동가들의 목표와 궤를 함께 한다. 그중에서도 3·1운동의 핵심적 기획자로서의 역할과 중앙학교 숙직실 등을 주요 무대로 펼쳐진 다양한 인물들과의 밀의와 역할 분담,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켜가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한 긴장과 감동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중앙학교를 무대로 확산되어간 3·1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높지도 깊어 보이지도 않는다. 아마도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로 구별된 33인 지도자의 역할과 전국적인 시위와 투쟁 양식, 그의 결과 등에 비중을 둔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sup>3)</sup>

독립운동의 추진 과정에는 국내와 국외는 물론 각 지역의 특성상 여러 방식과 수단이 있게 마련이고, 실제로 각기 처한 환경과 집단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가령 중국의 만주 지역이나 내륙의 상해와 북경, 러시아의 연해주 등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주로 무장투쟁 노선을 택하였고, 미국의 하와이나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등지에서는 외교투쟁 외에도 무장투쟁, 실력양성 등이 추구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비폭력 형태의 항일독립운동과 교육 등을 통한 실력양성 운동 등이 주로 추구되었다. 이처럼 독립운동가들이 택한 양식을 무장투쟁운동, 외교독립운동, 실력양성운동 등으로 분류한다면, 고하 송진우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실력 배양, 그리고 항일언론과 민족혼 고취에 주력한 점에서 실력양성운동 쪽에 가깝다.

그런데 한국의 학계에서는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서술과 연구 경향이 해외의 독립운동가들과 그들의 무장투쟁 노선 등에 많은 비중이 두어져 왔다.<sup>4)</sup> 그것은 1970년대까지 대외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상대적으로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던 아쉬움을 보완하고 연구의 시야와 지평을 국제무대로 넓히는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이 시기에 개방된 북한 측 역사 관련 서적에 대한 독서열기, 중국 대륙 및 러시아와의 수교로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대한 방문과 교류가 붐을 이루면서 그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가 붐을 이룬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근래까지도 국내의 항일민족독립운동 그중에서도 실력양성을 꾀했던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일제 말기 전시동원체제하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굴절을 겪은 인사들의 공과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 보다는 주로 친일반역자로 몰아세우는 분위기 속에서 굴절을 보이지 않았던 많은 국내 인사들까지도 저평가하거나 의혹의 대상이 되어 연구를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았다. 굴절을 겪은 인사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인사들 모두 주요 연구 대상임은 물론이다. 역사가가 이들의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면 될 뿐이다.

3) 이 점은 3·1운동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사 정리나 각종 역사교과서 서술 등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봉, 「3·1운동」(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7);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I·II, 한길사, 1990; 이정은, 「3·1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론』, 국사편찬위원회, 1996; 권대웅·박결순, 「3·1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회 편, 『한국독립운동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8; 국사편찬위원회 편, 『광복 70년, 독립운동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國史編纂委員會, 2016; 국사편찬위원회 편,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로 보는 1919, 그날의 기록 1-종합편』, 국사편찬위원회, 2019 등을 참조.

4) 이정은, 「3·1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론』, 국사편찬위원회, 1996, 3-44쪽; 권대웅·박결순, 「3·1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회 편, 『한국독립운동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8, 89-109쪽 등을 참조.

학술상의 건설적 비판과 논쟁은 당연하고도 권장할만하지만, 대안 없는 비난과 특정 인물 낙인찍기 등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각기 처한 상황과 여건 때문에 해외에서는 주로 무장투쟁이나 외교투쟁을 지향하고, 국내에서는 소극적 저항과 장기적 목표로 실력양성운동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장투쟁을 하면서도 실력양성이 필요함을 인식했고,<sup>5)</sup> 실력양성에 치중하면서도 일제의 감시를 피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은밀히 지원하거나 청년학생들의 항일정신, 민족정신을 함양함과 동시에 민족의 실력양성을 위해 헌신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필자가 한국근현대사 내지 독립운동사 연구 분야에서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런 현실에 대한 고려와 연구 대상에 대한 안배와 균형 잡힌 접근이다.

3·1운동의 배경과 추진 및 전개 과정, 그의 결과와 영향, 의미 등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교차될 것이고, 3·1운동은 물론 일제하 항일민족독립운동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폭도 더욱 넓어질 것이고, 한국의 근현대사는 물론, 한국사에 대한 통시적 이해의 깊이와 폭도 더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하 송진우의 청소년기 민족의식 형성 과정과 3·1운동의 기획과정에 초점을 두어 실력양성에 기반한 항일민족독립운동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sup>6)</sup>

## 2. 고하 송진우의 민족의식 형성 과정

### 1) 송진우의 민족의식 형성-부친 송훈과 한학자 기삼연·김직부

고하의 청소년 시절 그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준 이들은 누구이고 그 방향은 어떤 것이었나? 가장 먼저 중요한 영향을 준 이들은 부친과 스승인 한학자들이었다.

고하 송진우가 태어난 것은 1890년 6월 11일(음력 5월 8일), 고향은 전라남도 담양부(고지산면 손곡마을, 현재의 담양군 금성면 손곡길 12-1 대곡리)이다. 모친은 제주 양씨였고, 부친 송훈(宋勳)은 신평 송씨이다. 4남 4녀의 자매 중 그는 다섯째였다. 송훈은 양반가문 출신이자 당시로서는 시사에 밝은 매우 개명된 인사였다. 일찍이 사재를 털어 담양학교를 세우고 집에서 양력설을 지냈다.<sup>7)</sup> 고하가 유교적 가풍 속에 한학을 10여 년간 익히고, 다시 영어 등 신학문을 접촉하게 된 데에는 부친의 시국을 보는 안목과 국가관이 큰 영향을 끼쳤다.

4세 때 일종의 가학으로서 한학을 접하기 시작한 그가 본격적으로 글을 배우게 된 것은 7세 때였다. 이때 그를 가르친 인물이 기삼연(奇參衍, 1851-1908)<sup>8)</sup>이다. 기삼연은 호남의 저명한 성리학자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문인으로 둘은 같은 집안 인물이다. 그 외 의병에 참여한 가문 인물로 기우만, 기산도가 있다.

5) 윤봉길 의사는 두 아들과 아내에게 유언을 남긴 내용은 자신과 같이 무장 투쟁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정치학, 과학, 철학 등 각 분야의 실력을 길러 미래의 인재가 되라는 것이었다. 즉 나의 아들들은 나폴레옹, 맹자, 에디슨과 같은 인물이 되고, 아내는 그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광 저, 이민원·양수지 역주, 『나의 친구 윤봉길』, 선인, 2017)

6) 이 글의 작성에는 심지연, 「고하 송진우」, 『한국현대인물론』 1, 을유문화사, 1987; 김학준, 『고하 송진우 평전: 민족민주주의 언론인 정치가의 생애』, 동아일보사, 1990; 신복룡, 『한국정치사』, 박영사, 2003, 437-454쪽 및 ; 김형석,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동문선, 2024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7) 김학준, 『고하 송진우 평전』, 동아일보사, 1990, 19쪽.

8) 洪英基, 「韓末 湖南倡義會盟所에 대한 一考察」, 『한국근현대사연구』 21, 2002 및 『대한제국기 호남 의병 연구』, 일조각, 2004를 참조.

송진우와 기삼연의 인연은 청일전쟁 전후의 시국 변화와 관련이 있다. 청일전쟁을 도발한 일본군이 이듬해 8월 20일(양력 10월 8일) 경복궁을 습격하여 조선의 왕후(1897년 명성황후 추존)를 시해한 사건(을미사변)으로 전국에 의병이 봉기했을 때 기삼연은 호남창의맹소(湖南倡義盟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에 쫓기다가 마침내 송씨 집안에 기거하게 되었다.

기삼연은 이때 송진우에게 글을 가르쳤고 고하(古下)라는 호도 지어주었다. 손곡리 마을의 고비산(古比山)처럼 곳곳이 살라는 뜻이었다.<sup>9)</sup> 어린 송진우에게 성리학자이자 의병장 기삼연이 심어준 민족의식, 구국의식은 평생의 길잡이가 되었다. 송진우도 “기삼연 선생은 나의 가슴에 굽다란 장작을 넣어주고 거기다 불을 놓은 셈”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sup>10)</sup> 특히 기삼연의 병장이 일본군에 쫓기며 의병운동을 하다가 1908년 총살형으로 순절한 사건은 약관이 채 안된 송진우에게 일생 지워지지 않는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하가 결혼한 것은 14세 때인 1904년, 부인은 고흥 유씨 유차(柳次)였다. 고하는 그 무렵 백양사의 말사인 청류암(清流庵)에서 성리학자 김직부(金直夫)에게 1년 반 동안 수학하였다.<sup>11)</sup>

그가 4세 때 가학으로서 유학을 접하고 7세 때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그는 16세에 이르기까지 최소 10년 길게는 12년간 유학, 요컨대 성리학을 익힌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구국의 정신이나 민족의식이 강렬했다 하여도 성리학적 가치관에만 머물렀다면 후일 민족과 국가의 리더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다. 동서 문명이 바뀌고 시대가 큰 격변을 맞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진우에게 새로운 방향을 시사해 준 이는 부친이었다.

나라가 기울어진 원인은 우리 스스로 정치를 잘못된 죄도 있지만, 왜인의 신학문이 우리를 크게 압박한 것이다. 일본은 일찍이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무기를 장만하고 제도를 고쳐 놀랄만한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바깥세상이 발전하는 것을 몰랐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함께 협력하여 신문명을 열심히 받아들이면 다른 민족이 1백년에 한 것을 20년 혹은 30년 안에 회복할 수 있다. 신학문을 열심히 배워 학문, 무기, 산업 모두 우리가 일본을 앞서가서 이기는 길 뿐이다. 배우는 일, 이보다 더 큰일은 없다.<sup>12)</sup>

부친 송훈의 국가 발전과 극일(克日)의 방안은 개명적이고 선진적이었다. 이후 송진우의 생애는 부친의 가르침대로 일관되었다.<sup>13)</sup> 나폴레옹, 맹자, 에디슨에게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고, 청년 안중근에게 부친 안태훈 진사가 있었다면, 송진우에게는 부친 송훈이 있었다.<sup>14)</sup>

## 2) 송진우의 벗과 지인들-인촌 김성수와 일본 유학 시절의 친구들

고하 송진우의 의식 성장 과정에는 부친과 한학 스승들의 영향도 컸지만, 그와 일생 동안 함께 시국을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며 협력한 벗과 지인들을 빼 놓을 수 없다.

성리학을 익히던 송진우가 신학문을 접하게 된 것은 16세 때였다. 을사늑약 이후 규장각 제

9) 김학준, 『고하 송진우 평전: 민족민주주의 언론인 정치가의 생애』, 동아일보사, 1990, 17쪽.

10) 김형석, 『건국의 아버지들-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동문선, 2024, 26쪽.

11) 김형석, 위의 책, 26쪽.

12) 위와 같음. 신복룡, 『해방정국의 풍경 - 인물로 돌아보는 대한민국 현대사』, 중앙북스, 2024, 제 5장을 참조.

13) 대한민국의 건국을 불과 2년여 앞두고 1945년 12월 운명하였지만, 송진우가 부친의 가르침 대로 일관되게 추구한 민족의 독립과 부국 자강의 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인 모두의 맘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 최근 일본에서 수죽(水竹) 송훈이 쓴 시판(詩板), 「조현묘각운(鳥峴墓閣韻)」이 문화유산청에 돌아왔다. 내용은 송훈이 담양군 ‘조현’ 지역의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쓴 것으로 추정된다. (<https://blog.naver.com/chagov/223485563009>).

학을 지낸 고정주(1863-1933)가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후 낙향하여 담양의 창평에서 영어 등 신식학문을 가르치는 학당, 즉 영학숙(英學塾, 1906년 4월 설립)을 세웠다. 일종의 영재학교였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은 고정주 역시 개명된 인물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송진우의 부친 송훈은 고정주를 찾아가 자신의 아들 진우에게도 가르쳐 주기를 정중히 부탁하였다.<sup>15)</sup> 성리학에 심취해 있던 송진우는 이렇게 부친의 인도로 신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고정주가 세운 영학숙은 호남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었다. 이곳에서 송진우는 일생의 벗이 된 김성수를 만났다. 김성수는 고창 출신이고 고정주의 사위였다. 함께 배운 고광준은 고정주의 아들이었다. 송진우는 김성수, 고광준, 현준호(1889-1950) 등과 함께 배웠다.

김성수가 1906년 겨울 귀가하자 양아버지가 ‘담양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나’ 고 묻자, ‘송진우라는 친구를 얻었다’고 하였다.<sup>16)</sup> 이곳에서 맺은 송진우와 김성수의 인연은 국내와 일본에서 평생 동고동락하는 관계로 이어졌다.

1907년 김성수는 생가와 양가가 고창에서 부안으로 이주한 뒤 변산반도의 내소사(來蘇寺) 말사인 청련암(淸蓮庵)에서 독학하였다. 이때 송진우와 백관수(1889-1951)가 찾아와 함께 공부하면서 나라 걱정과 함께 시국 토론을 하던 이들은 일본으로 유학하여 신학문을 배우기로 하였다.

고향에서 일본 유학에 대비해 초급 일본어를 배우던 송진우는 서울의 한성교원양성소에서 배우라는 부친의 권유를 받고 김성수를 찾아갔다. 이때 김성수는 대한협회 측의 계몽운동가인 한승리로부터 ‘나라의 주권은 백성에게 있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강연에 감격하였다.

이때의 또 다른 기연은 둘이 의기투합해 있을 때 부친(홍범식-금산군수)을 따라 금산으로 가던 홍명희를 군산의 객주집에서 만난 일이다. 도쿄 다이세이중학(大成中學校)에 다니던 홍명희는 일본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들은 이후 도쿄에서 인연을 이어갔다.

일어교사의 도움으로 도항증명서를 구한 송진우와 김성수는 1908년 일본으로 떠났고, 아직 부친의 승낙을 얻지 못한 백관수는 동행하지 못하였다. 도쿄에서 홍명희의 안내로 세이소쿠 영어학교에서 준비과정을 마친 후 1909년 킨조중학교(錦城中學校)에 입학하였다. 이듬해인 1910년 4월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고등예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해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탄되자 송진우는 아무도 모르게 부산-군산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왔다. 심지어 절친 김성수에게도 알리지 않아 모두가 불안해하는 사이에 ‘고하가 자결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국권 상실에 충격이 컸던 송진우는 이때 자결까지도 생각한 것 같다. 고향에서 두문불출하며 번민하던 그는 마음의 상처를 추스리고 다시 일본으로 갔다. 와세다 대학에 복학했다가 메이지대학 법학과로 편입하였다. 이때의 생각을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이제부터의 구국운동은 과거의 의거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 한 두 사람 또는 한두 단체의 구국운동이 아니라 전 민족적인 집단운동이라야 할 것이고, 둘째 어떤 한 부분을 통한 구국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각 부분이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사업을 해야겠고, 산업을 일으켜야 하겠고, 동시에 금융기관과 신문, 출판기관을 가져야 한다.

30세 송진우의 분석과 구상은 한민족의 미래를 대비한 놀랍고도 중요한 대안이었다. 이같은 그의 구상은 이후 친구 김성수의 호응과 협력 속에 평생을 지속한 애국사업이 되었다.

15) 고정주는 차남 고광준과 사위 김성수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지인들의 자녀들을 모아 영학숙(英學塾)을 설립하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한 귀화인 이표(李濼)를 교사로 초빙했다.

16) 김형석, 『건국의 아버지들-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동문선, 2024, 29쪽.

한편 송진우의 복학에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김성수였다. 둘은 이제 다니는 학교가 달라졌지만, 거의 매일 만나 현재의 시국과 장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송진우는 김성수와의 친교 외에도 유학생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후일 그가 국내에서 중앙학교와 동아일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때 이들 모두는 동반자 내지는 강력한 협력자가 되었고, 3·1운동 당시에도 그 점은 마찬가지였다.

이들 중에 조만식, 김병로, 현준호, 장덕수, 백관수, 현상윤, 조소앙, 안재홍, 신익희 등 출중한 근현대의 주요 인재들이 있었다. 이 중 송진우가 메이지대학 법과에서 함께 공부할 때 특별했던 인물은 7살 연상의 조만식(1883-1950)이었다. 송진우는 이들과 <조선유학생친목회>를 조직하여 말형격인 조만식이 회장을, 송진우가 총무를 맡았다.

송진우는 대학에서의 수강 외에 독서활동, 유학생들과의 교류, 일본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당시 유행하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분위기를 넉넉히 맛보게 되었다.

위의 친구들 뿐 만이 아니라 현상윤, 백남훈 등과 어울려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우찌무라 간조(内村鑑三)를 비롯하여 저명한 자유주의 지식인들과 접촉하였다. 조만식이 회장을 맡고 있는 동경한인기독교청년회(YMCA)의 예배에도 참석하고 거기서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에 대한 강연도 들었다. 일본에 유학중인 조선인 청년들 모두도 요시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때 송진우는 <호남유학생회>와 <호남유학생다화회(湖南留學生茶話會)>도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김성수, 김병로, 현준호, 장덕수, 신익희, 조소앙 등과 함께하였다. 한편 송진우는 김병로, 최팔용 등이 간행한 『학지광(學之光)』의 편집인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sup>17)</sup>

이때의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사상개혁론」이다.<sup>18)</sup> 내용은 봉건적인 혈연의식, 특권의식의 타파, 강제결혼의 타파, 제사 형식의 간소화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제사상의 바탕이 되어 온 유교사상의 타파를 주장하면서,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상징적 구심체로서 단군에 대한 숭배를 강조하였다.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직접 이를 실천한 것으로 전한다.<sup>19)</sup>

이상에서 보듯이 송진우의 의식 형성과정에는 부친과 성리학자 스승들, 김성수와 조만식 등의 친구들과 일본에서 교류한 여러 재일유학생들, 그리고 저명한 일본 사상가들의 강연과 친교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울러 그가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 벌였던 다양한 학회와 단체 활동, 요컨대 인촌 김성수 등과 함께 재일유학생회를 이끌며 민족의식을 환기하고 유학생의 결속을 다진 일은 후일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은 물론, 3·1운동의 기획과 진행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 3. 송진우의 항일민족독립운동-3·1운동의 기획과 중앙학교

#### 1) 송진우의 귀국과 중앙학교의 김성수

1915년 7월 송진우는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였다. 1915년까지 일본에 유학한 졸업생은 5백

17) 이상은 김형석, 『건국의 아버지들-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동문선, 2024, 31-36쪽을 참조.

18) 송진우, 「사상개혁론」, 『학지광(學之光)』3-1, 총 5호, 1915년 5월(고하 송진우 기념사업회 편, 『거인의 숨결』, 이야기 숲, 2023, 27-44쪽.

19) 이 절의 내용은 김형석,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동문선, 2024; 김학준, 『고하 송진우 평전: 민족민주주의 언론인 정치가의 생애』, 동아일보사, 1990; 심지연, 「고하 송진우」, 『한국현대인물론』 1, 을유문화사, 1987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여 명이었다. 그중 본과를 졸업한 이는 송진우를 포함해 9명에 지나지 않았다. 1916년 귀국 당시 송진우는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되는 인물이었다.

귀국한 송진우를 곧바로 중앙학교의 학감으로 초빙한 것은 김성수였다. 김성수는 2년 전 먼저 귀국하여, 양아버지 김기중(金祺中)과 친아버지 김경중(金暲中)에게 교육사업에 대한 뜻을 밝혔고, 마침내 두 아버지의 지원으로 중앙학교를 인수하여 교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성수의 양아버지 김기중은 1886년 진사가 되고, 1904년 용담·평택·동북 등지의 군수를 거쳐 1906년 정3품에 올랐다. 그러나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관직을 떠나 교육·문화사업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1908년 향리 줄포(茁蒲)에 영신학교(永新學校)를 설립하였다. 그 뒤 일본에 건너가 교육제도를 시찰하고 중등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1915년 경영난에 빠진 서울의 중앙학교(中央學校)를 인수, 김성수의 생부인 경중(暲中)과 함께 설립자가 되었던 것이다.<sup>20)</sup>

1908년에 등장한 기호흥학회와 기호학교를 기원으로 하는 중앙학교는 윤효정, 박승봉, 유길준, 권병덕, 남궁훈 등이 역대 교장 등을 지내며 교육사업에 주력했지만, 어려운 재정난에 직면하였을 때 마침 교육사업을 모색하고 있던 김성수가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김성수의 생부와 친부 모두 대한제국기에 관리를 지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지닌 개명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사업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김성수는 일본 유학 시절에 이미 교육을 통해 미래의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양성하고자 송진우와 함께 다짐하던 계획을 이미 실천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중앙학교에서 학감 송진우는 역사를 가르쳤고, 교장 김성수는 경제학을 가르쳤다.

2년 뒤인 1918년 4월, 송진우는 김성수에 이어 제 10대 중앙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당시의 교직원 구성은 석학들의 모임과 같았다. 학감은 최규동, 교사로는 현상윤, 최두선, 이강현, 고희동 등 일본 유학생 출신과 이중화, 변영태 등 국내 출신 인사들이었다. 송진우는 학교 속 직실에 기거하면서 이들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며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였다.

송진우는 역사를 가르치는 한편 유근(柳瑾, 1861-1921), 최남선(崔南善, 1890-1957) 등과 교류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깊이 심어주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원래 송진우의 주요 전공은 법학이었지만, 법률 교과서 외에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역사 서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동서 역사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sup>22)</sup>

그는 학생들에게 민족의 시조 단군과 민족문화를 발전시킨 세종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을 강조하였다. 한걸음 나아가 단군과 세종 이순신을 모시고 혼례를 올릴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sup>23)</sup>

송진우는 1917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동지를 모으고, 자금을 조달하여 삼성사(三聖祠) 건립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남산에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을 모시는 사당을 세우려 한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총독부는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남산에 신사(神祠)를 세운다고 공포하고 조선신궁(朝鮮神宮)을 건립하였다. 삼성사 건립은 일본의 방해로 좌절되었으나 그가 학생들과 일반에

20) 중앙학교는 1917년 계동으로 교사를 신축, 이전하였다. 1932년 김성수의 두 부친은 천도교로부터 보성전문학교를 넘겨받고 동대문 밖에 신축교사를 건립, 이전하였다. 후일 김성수가 민립대학 설립계획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못하자 사학(私學)으로 뜻을 이어 가고자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여 김성수에게 운영을 맡겼다.(崔炯鍊, 「三·一운동과 中央學校」,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316쪽)

21) 崔炯鍊, 「三·一운동과 中央學校」,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313-317쪽.

22) 송진우, 「독서잡기」, 『삼천리』, 8-6, 1936년 6월, 58쪽.

23) 중앙학교 학생 출신 중에는 평생 단군, 세종, 이순신,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집에 모셔 놓고 명절 때마다 자녀들을 훈육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필자가 이영옥 전 성균관대 영문과 교수(전 안중근의사기념관장)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게 고취시키고자 한 민족혼(民族魂)은 중앙학교를 통하여 널리 펼쳐졌다.

## 2)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제창과 국내외 지도자들의 인식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앗아간 이후 한민족의 독립은 2천만 민족에게 사무치는 소망이었다. 그러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즈음하여 1918년 1월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은 패전국의 지배하에 있던 약소민족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하의 한민족에게도 천재일우의 기회로 받아들여졌다.<sup>24)</sup>

당초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영토 문제를 처리를 위한 특정 수단으로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우선 1916년 5월 27일 미국 <평화추진연맹>의 주최로 열린 모임에서의 연설에서 윌슨은 이를 언급한 바가 있다. 이런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민족자결주의는 이후 거듭 표명되었다. 1917년 1월 <승리 없는 평화>라는 연설에서 그는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 혹은 국민에 대하여 그 정체를 확장시키려 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은 정체 그 자체의 발전방식을 방해, 위협 받지 않고 자유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하였다.<sup>25)</sup>

이후 1918년 1월 8일 그가 강화의 원칙으로서 제시한 1개조에서는 이때까지 이념으로서 제기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가 패전국의 영토에 한정되었지만, 14개조의 발표 이후에도 윌슨은 민족자결주의의 적용 범위 보다는 그의 이념을 거듭 강조하여 새로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리라는 신념을 확산시키게 되었다.

국내외 한민족의 지도자들도 14개조에서 밝힌 민족자결주의의 현실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로 보아 당장 실현되기 어려움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자결권을 행동으로 주장하고 국제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독립운동의 선두에서 이를 이끌었고, 한민족은 이에 호응하여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안창호의 사례가 흥미 있다. 그는 휴전 후 미국의 흥사단우에게 발표한 <전쟁종결과 우리의 할 일>이라는 담화문에서 민족자결주의에 의거 우리의 독립을 호소해도 국제정세 상 독립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차제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력을 기르는 일이라는 것을 역설하였다.<sup>26)</sup> 그러나 안창호도 3·1운동의 발발 소식을 접하자 한민족 모두가 일어나 가진 바 생명, 재산, 기능 모든 것을 바치고 용맹하게 나아가기를 맹세하자고 하였다.

이런 사실은 재미동포들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현실정책으로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지만, 다른 한편 그의 본질적 이념에 입각하여 한민족의 자결권을 주장하고 그의 한 방안으로서 파리강화회의의 자리에 가서 호소하려 했음을 잘 보여준다.

국내의 주요 인사들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소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일찍이 접하고 있었다. 물론 민족자결주의의 조항에 담겨진 약소국 범위의 한계와 함께 그것이 담고 있는 보편적인 이념의 가치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 중 국내외 인사들이 주목한 것은 보편적인 이념의 가치였다. 그것이 도쿄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은 물론, 한민족 전체의 3.1운동 추진에 주

24) 崔炯鍊, 「三·一운동과 中央學校」,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318쪽.

25) 당초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영토 문제를 처리를 위한 특정 수단으로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우선 1916년 5월 27일 미국 <평화추진연맹>의 주최로 열린 모임에서의 연설에서 윌슨은 이를 언급한 바가 있다. 요지는 모든 국민은 주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세계의 약소국가는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하여 강국과 마찬가지로 존중될 권리가 있으며, 세계는 국민과 국가의 권리 침해 및 무시 등 평화교란 행위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이었다. (李普珩, 「三一運動에 있어서의 民族自決主義의 導入과 理解」,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175~176쪽)

26) 주요한 편저, 『安島山全書』, 三中堂, 1963, 189쪽. 연설전문은 519-524쪽; 李普珩, 「三一運動에 있어서의 民族自決主義의 導入과 理解」,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178쪽.



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27)

### 3) 송진우·김성수·현상윤의 3·1운동 기획과 중앙학교

3·1운동의 기획과 관련해서는 여러 설이 등장했다. 그중 일부가 이승만 기획설, 천도교 기획설, 송진우 등 중앙학교 기획설이다.<sup>28)</sup> 이중 송진우, 김성수, 현상윤 등 중앙학교의 인물들이 발의 주동한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밝힌 것은 현상윤의 증언이다.<sup>29)</sup>

현상윤은 중앙학교에서 3·1운동의 거사를 모의하기 시작한 것은 월슨의 <14개 조항>이 발표된 뒤 미주에서 이승만 등이, 상해에서 김규식 등이 파리에 한족대표로 출발을 준비하던 무렵임을 밝히면서 국내 정황을 서술하고 있다.<sup>30)</sup> 이를 요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앙학교에서 교장 송진우, 전 교장 김성수, 교사 현상윤 3인이 최초로 거사를 발의하였고, 이어 천도교의 최린, 그리고 최남선 등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나는 김성수, 송진우 양씨와 중앙학교 구내의 사택에 동거하고 있었던 관계로 조석으로 시사(時事)를 말하는 동안에 말이 여기에 미치면 3인이 다 같이 초조하였었다. 그리하여 국내에서 큰 운동을 일으키려면 먼저 단결력이 있는 천도교를 움직이는 것이 상책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때에 나는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중학을 졸업한 관계로 동 교장 최린(崔麟) 씨를 가깝게 상종하던 터라 수차 최 씨를 찾아 천도교의 동향을 타진한 즉 용력할 만도 하고 또 최 씨의 의견도 반대하는 기색이 적으므로 그때부터는 송 씨와 동반하여 최 씨를 찾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18년 11월경부터 시작하여 이후 수개월 동안에 걸쳐 의견교환과 모의를 거듭한 결과 거사를 결행하기로 하고 일변(一邊) 동지를 구하는 의미로 최남선(崔南善) 씨의 참가를 구하는 동시에 다른 일변으로는 천도교의 중진 오세창(吳世昌), 권동진(權東鎭) 양씨와 연락하여 손병희(孫秉熙) 씨의 궐기를 종용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최남선 씨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31)

② 1919년 1월 재일유학생 송계백이 이광수가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전하였고, 이에 송진우와 현상윤이 최남선을 방문하여 이를 보이자, 최남선이 독립선언서 작성을 결심했고, 이를 손병희에게 전하니 손병희는 천도교계 간부회의를 열어 천도교의 궐기를 결정하였다.

27) 3·1운동의 직접 동기로는 몇 가지가 거론되어 왔다. 즉 1918년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 1919년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의 폭崩, 그리고 1917년 러시아혁명의 영향설 등이 그중 일부이다. (김진봉, 「3·1운동」(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7)

28) 3·1운동의 기획과 관련해서는 여러 설이 등장했다. 이승만 기획설, 천도교 기획설, 송진우 등 중앙학교 기획설 등이다.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1996; 류석춘·오영섭·데이빗 필즈·한지은 공편, 『국역 이승만 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승만연구원: 서울, 2015, 89쪽; 李炳憲, 「내가 본 三·一운동의 一斷面」,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김명구, 「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와의 상관성」, 『거인의 숨결』, 이야기 숲, 2023, 221-223쪽)

29) 玄相允, 「3·1운동 발발의 개요」, 『思想界』 1963년 3월호. 기당(幾堂) 현상윤(玄相允, 1893~1950?)은 1915년 도쿄 유학생 잡지 『학지광』 편집에 참여하면서 송진우와 인연을 맺었다. 3·1운동 기획 당시 중앙학교 교사로서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과 민족 대표와 학생 단체 사이의 연락을 위해 활동하였다. 3·1운동 지도자 48인의 한 사람이다. 1932년 김성수의 권유로 보성전문학교로 옮겼으며, 해방 뒤인 1946년 교장을 지내다가 1947년 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되면서 초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현상윤은 유학 시절에 문인으로, 귀국 뒤에는 교육자로서 활동했으나 『조선 유학사』를 펴낸 역사학자로서도 유명하다. 6·25 때 납북된 인사 중 한 사람이다.

30) 현상윤의 글을 고종황제의 붕어와 독살설과 연결 지어 소개한 것이 최형련(崔炯鍊)의 글이다. (崔炯鍊, 「三·一운동과 中央學校」,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31) 고희송진우기념사업회 편, 『거인의 숨결』, 이야기 숲, 2023, 195쪽.

그러나 최 씨는 용이하게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이때 1919년 1월 초순경 일본유학생 송계백(宋繼白) 군이 장차 일본에서 발표하려는 일본유학생들의 독립요구선언서 초고(이광수 작)를 휴대하고 비밀리에 서울에 들어와 나에게 그것을 제시하였다.

송 씨와 나는 그것을 가지고 먼저 때마침 중앙학교를 내방하였던 최남선 씨에게 보이니 최 씨도 금후로 국내의 독립운동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고 또한 국내운동의 선언서는 자기가 짓겠다고 쾌락하였다.

그때 나는 다시 그 초고를 가지고 최린 씨를 경유하여 손병희 씨에게 제시하였다. 그러한 즉 손 씨 왈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운동을 한다 하니 우리로서 어찌 앉아서 보기만 할 수 있겠느냐’ 하여 그날로 천도교의 최고간부회의를 열어 토의를 열고 드디어 천도교의 결기를 결정하게 되었다.<sup>32)</sup>

③ 송진우와 최린, 최남선, 현상윤 등은 민족대표자 명의의 독립선언서를 인쇄, 전국에 배포하고, 일본 정부와 양원에 전하고, 조선총독과 파리강화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어 손병희 등 여러 민족대표자 후보자들에게 승낙을 얻기로 하였으나 교섭이 여의치 않자 일시 운동의 중지를 결정하였다.

그날 저녁 최린, 송진우, 최남선과 나는 재동의 최린 씨 집 내실에 비밀히 회합하였는데 이날 저녁에 4인은 기뻐서 축배를 들고 밤 깊도록 독립운동의 실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과 방안을 토의하였다. 그러한 결과 먼저 민족 대표자 명의로 조선 독립을 중외에 선언하고 그 선언서를 인쇄하여 이것을 조선 전도에 배포하고 또 국민을 총동원시켜 크게 조선 독립의 시위운동을 행하여 한국민족이 1910년의 소위 합병을 힘 있게 부인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독립을 열망하고 있는가를 내외에 표시케 하며 또 일변으로 일본 정부와 그 귀·중 양원과 조선총독과 또 파리강화회의에 열석한 각국 대표에게 조선독립에 관하여 진력하기를 비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선언서와 기타 서류는 최남선 씨가 제작하기로 하고 우선 민족대표자로 하여 제1후보자로 손병희 씨 이외에 박영효, 이상재, 윤치호 제씨의 승낙을 얻기로 하고 박씨의 교섭은 송진우 씨가, 이·윤 양씨의 교섭은 최남선 씨가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수일 후에 전기 4인은 다시 계동 중앙학교 사택에 회동하여 그동안 교섭의 경과를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박·이·윤 3 씨가 다 교섭을 거절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전기 4인은 다시 제2후보자로 한규설·윤용구 양씨에게 교섭하기로 하고 한 씨에게는 송진우 씨가 유진태 씨를 통하여, 윤용구 씨에게는 최남선 씨가 윤홍섭 씨를 통하여 각각 교섭하기로 하였다.

이삼일을 경과하여 또 다시 계동 중앙학교 구내 사택에 전기 4인이 회합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들었는데 한 씨는 처음에는 승낙하였으나 윤 씨가 승낙치 않으므로 한 씨도 승낙을 철회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한즉 최린씨가 민족대표를 다른 데 구할 것 없이 손 씨를 선두로 하고 우리 4인이 자진 참가하자고 하여 먼저 최남선씨에게 의향을 물으니 최 씨는 가업 관계로 하여 승낙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답에 송진우 씨의 의향을 물었는데 송 씨는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한 즉 최린 씨는 다시 최남선 씨를 향하여 최 씨가 승낙치 않으면 자기도 참가할 수 없고 또 천도교만으로는 이 운동을 진행할 수도 없으니 전부 이 운동을 중지하자고 제의하여 부득이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④ 송진우, 현상윤, 김성수는 이만큼 진행된 운동을 중지하는 것은 유감이므로 최남선에게 기독교와 천도교의 연결을 제안하였다. 이에 정주의 이승훈을 상경토록 청하여 계동의 김성수 별택에서 만나 기독교 측 참가를 청하자 즉석에서 이승훈의 수락을 받았다. 김성수는 수천원의 운동비를 이승훈에게 지급하였고, 이승훈은 평안도의 장로파, 감리파 지도자들의 승낙을 얻고 인장을 모아 신흥식과 함께 경성에 와서 송진우에게 내경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이만큼 진전된 운동을 중지하고 만다는 것은 심히 유감되는 일이므로 그 후 4.5일을 경과하여

32)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巨人的 숨결』, 이야기 숲, 2023, 195-196쪽.

나는 최남선 씨를 자택으로 왕방하였다. 그리하여 최 씨에게 ‘기독교를 천도교와 연결시키는 것이 어떠하나 그리하자면 정주의 이승훈 씨를 상경케 함이 어떠하나.’ 하는 의견을 말하였다. 그러한 즉 최씨 왈 ‘좋다 그리하자’ 하는지라. 나는 그 길로 수하동 정노식 씨의 숙소에 들러 정씨더러 동소에 유숙하는 김도태 군을 정주에 파송하여 이승훈 씨의 내경을 구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였더니 2월 11일에 이 씨는 급거히 상경하였다.

그러나 최남선 씨는 관헌의 주목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은 이 씨와 회견치 아니하고 송진우 씨와 나더러 회견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양인과 김성수 씨는 계동 김성수 씨 별택에서 이 씨를 회견하고 그동안 재경동지의 계획과 천도교의 동향을 말하고 기독교 측의 참가와 동지규합의 일을 청하니 이승훈 씨는 즉석에서 그것을 쾌락하고 김성수 씨로부터 수천원의 운동비를 받아가지고 그 날로 관서지방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승훈 씨는 질풍뇌우와 같이 평남북을 순행하여 장로파의 길선주, 양전백, 이명룡, 유여대, 김병조 제씨와 감리파의 신흥식 씨 등과 회견하고 그들의 민족대표자의 승낙을 얻고 또 그 입장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신흥식 씨와 동반하여 다시 경성으로 왔다. 그리하여 곧 송진우 씨에게 내경의 뜻을 통지하였다.<sup>33)</sup>

⑤ 일본 관헌의 주목을 우려하여 송진우와 이승훈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기독교 단독으로 거사를 결심하였으나 이승훈과 최린의 접촉 결과 합동하기로 하였다. 최린이 5천원의 운동비를 이승훈에게 빌려주었고, 이갑성, 함태영 집에서 거둬 회합한 결과 천도교와 합동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할 것을 결정, 2월 22일 공식적으로 그 취지를 천도교에 통고하였다.

그러나 그때 관헌의 주목이 있을까 하여 관계 각인이 행동을 삼갔던 때라 송씨는 수차 이 씨를 비밀히 소격동 여관으로 왕방하였으나 하등 명쾌한 회답이 없고, 또 교섭의 본인인 최남선 씨는 용이히 일차도 면회치 아니하므로 이 씨는 심중에 대단히 의아하여 천도교와의 연결을 단념하고 기독교도 단독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는 때에 중앙청년회 간사 박희도씨를 노상에서 만나니 경성에서도 기독교도들 사이에 독립운동에 관하여 인심이 암암리에 도용하고 있다 하므로 이 씨는 곧 그들과의 회견을 청하여 20일 야에 감리파의 오화영, 정춘수, 신석구, 최성모, 박동완, 이필주, 오기선, 신흥식 제씨와 회담하여 쉼의 계획과 운동방법을 합의하고 또 이승훈 씨는 그날 밤에 계속하여 별개로 남문 외 함태영 씨 집에서 이갑성, 안세환, 현순, 오상근 씨 등의 장로파 인사들과 회합하여 역시 독립운동에 대하여 기독교 측 단독의 계획을 합의하였다.

그러는 중인 2월 20일에 최남선 씨가 비로소 이승훈 씨를 그 숙소로 방문하고 이 씨와 동도(同道)하여 재동 최린 씨를 찾아 서로 회견케 하였다. 이 때에 이승훈 씨는 최린 씨에게 기독교도만으로 독립운동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뜻을 고하니 최린 씨는 독립운동은 한국민족 전체에 관한 문제이니 종교의 이동(異同)을 불문하고 마땅히 합동하여 추진시킬 것인즉, 기독교와 천도교가 합동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한 즉 이 씨는 동지들과 상의한 후에 회답할 것을 약속하고 또 만일 합동하는 경우에는 운동비를 얼마만큼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승훈 씨는 최린 씨와의 회견이 있는 후에 곧 세브란스 구내인 이갑성 씨의 집에서 박희도, 오화영, 신흥식, 함태영, 안세환, 현순 씨 등과 회합하여 철야 합의한 결과 천도교 측과 합동하는 문제에 가부는 먼저 천도교 측의 운동방법을 알아 본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그 교섭은 이승훈, 함태영 양씨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함 양씨는 최린 씨를 방문하여 천도교 측에 구체적인 의견을 물었다. 그러한 즉 천도교 측의 의견도 기독교 측의 그것과 다름이 없고 또 최린 씨로부터 운동비 5천원도 그 전날에 이승훈 씨에게 대여되어 왔으므로 이·함 양씨는 다시 함태영 씨 집에서 기독교 측의 동지들을 회합하고 협의한 결과 천도교 측과 합동하여 독립운동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그 취지를 정식으로 2월 24일에 천도교 측에 통고하였다.<sup>34)</sup>

33)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巨人的 숨결』, 이야기 숲, 2023, 197-198쪽.

34)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巨人的 숨결』, 이야기 숲, 2023, 198-200쪽.

⑥ 최린, 이승훈, 함태영 3인이 천도교와 기독교 측을 대표하여 거사일은 이태왕 국장일 전전 날인 3월 1일 탑동공원에서 행하기로 결정하고, 불교단체 참가를 구하여 한용운, 백용성 2인의 승낙을 얻었다.

이때 천도교 측은 최린 씨를 대표자로 하고 기독교 측은 이승훈, 함태영 씨를 대표자로 하여 수회에 걸쳐 합의한 결과 독립선언은 이태왕 국장일의 전전일인 3월 1일 정오 탑동공원에서 행하기로 정하고 선언서는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사에서 비밀히 인쇄하기로 하였다. 이때에 최린 씨와 이승훈, 함태영 3씨는 불교 단체에도 운동에 참가를 구하여 한용운, 백용성 양씨의 승낙을 얻었다. <sup>35)</sup>

⑦ 송진우와 현상윤은 보성전문학교 졸업생 주익을 통하여 시내의 전문학교 학생들 대표들을 탐색하여 대기 태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에 박희도, 이갑성이 학생 대표자들에게 시위운동을 청하자 학생들은 쾌락하고, 승동예배당에서 각 학교 대표자들에게 구체적 지령을 전하였다.

이 보다 먼저 송진우 씨와 나는 보성전문학교 졸업생 주익 씨를 통하여 시내 전문학교 학생 중에서 그 대표될만한 인물을 탐색하여 대기의 태세를 취하게 하였던 바가 있었는데 이때 박희도, 이갑성 양씨는 이것을 알고 차등 대표자들과 회견한 후에 3월 1일의 계획을 말하고 시위운동의 실시를 청한 즉 차등 대표자들은 이것을 쾌락하고 2월 28일에 보성전문외 강기덕 군과 연희전문외 김원벽 군, 의학전문외 한위건 3군은 승동 예배당에서 시내 중등학교 대표자와 기타 남녀 전문학교 대표자 수십 명을 소집하고 시위운동에 대한 구체적 지령을 수여하였다. <sup>36)</sup>

이상의 준비를 마친 뒤 천도교, 기독교, 불교 3파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로 작성한 민족 대표자 일동은 서로 대면도 할 겸 또한 최후의 회의를 행하기 위하여 28일 밤 재동의 손병희 씨 댁에 회동하였다. 그 자리에서 탑동 공원은 다수의 학생이 집합하니 분요(紛擾)가 염려된다 하여 3월 1일에 행할 독립선언의 장소를 인사동 명월관 지점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거사의 기획단계로부터 여기까지 참여한 송진우와 현상윤, 최남선 등은 함태영, 정광조 등과 함께 잔류 간부로서 대표자들이 체포된 후에 해야 할 제반 임무를 담당할 것을 결정하였다. <sup>37)</sup>

#### 4.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민족과 개인의 주권 선언

3·1운동에 대해서는 그의 배경과 준비 및 진행 과정, 그의 결과와 영향 등이 두루 조명되어 왔다. 그래서 3·1운동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거족적 운동이자 보편적 인류의 가치에 입각한 최고의 한민족운동이었다고 평가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sup>38)</sup> 여기에 3·1운동을 통시적, 공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인류사는 크게 두 가지를 목표로 발전해 왔다. 하나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평

35)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巨人的 숨결』, 이야기 숲, 2023, 200쪽.

36)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巨人的 숨결』, 이야기 숲, 2023, 200-201쪽.

37)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巨人的 숨결』, 이야기 숲, 2023, 201쪽.

38) 신복룡, 「3·1운동사연구의 몇 가지 문제점」, 『한국정치사』, 박영사, 2003 제4판, 437-454쪽; 이정은, 「3·1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론』, 국사편찬위원회, 1996, 3-44쪽.

등하게 정립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이나 나라 사이의 관계를 대등하게 조정하는 일이었다. 요컨대 개인과 국가의 주권 확립 과정이다. 전자로 대변되는 것이 오늘날 보통, 평등, 비밀, 직접 등의 요소를 갖춘 국민투표권이고, 후자로 대변되는 것이 국가 주권의 평등, 요컨대 오늘날 유엔체제하 세계 모든 국가가 동등한 국가로서의 자격을 갖는 것이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한 세기 전만 하여도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결핍된 경우가 전 세계 각국에 두루 존재하였다. 조선왕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은 5백 년 동안 명나라와 청나라에 사대와 조공을 해 왔고, 반상의 차별이 있는 신분사회였다. 한국사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는 1884년의 갑신정변, 1894-5년의 갑오개혁, 1896-8년 사이의 독립협회 운동 등등 수차례 있었지만, 결실을 맺게 된 것은 19세기 말과 20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그중 국가의 대외적 주권의 확보는 1897년 10월 12일 고종의 황제 즉위와 대한제국 선포,<sup>39)</sup> 그리고 1899년 청국과 대한제국이 대등한 조건에서 한청통상조약(大韓國大清國通商條約, 1899)을 맺은 것이 중요한 매듭이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국왕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림)를 행하며 신하의 예를 표한 이래 처음으로 서로를 대등하게 보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다.<sup>40)</sup>

다음으로 한국사에서 개인의 자유와 주권 평등은 언제 천명되고 확립되어갔나? 다음 아닌 3·1운동 당시의 기미독립선언서가 그중 하나이고,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장 그리고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 그것이다.

고대 사회로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신분사회였다. 개인 사이에 신분 차별이 있는 불평등한 사회였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따랐다. 고려의 무신 정권 시대에 노비 만적은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며 절규하였고, 조선의 저명한 문인이자 관료였던 허균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들의 한을 주인공 홍길동을 통해 그려 내기도 하였다. 또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은 사민평등(士民平等)을 주장하였고,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등은 독립신문의 논설과 독립협회의 민권운동 등을 통해 인민의 평등과 권리 신장을 주장하며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설치운동을 펴기도 했다.

대한제국은 대외적 주권은 확보하였지만, 국가 체제는 황제국이고, 나라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도 황제의 대권만을 규정할 뿐, 민권에 대해서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었다. 군주와 일반 백성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제하 식민지 상황에서 오히려 인간의 주권에 관한 선언이 등장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에 관한 방안으로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그해 1월 8일 발표한 14개조안, 그중에서도 민족자결주의의 내용이 한민족에게 결정적인 자극제가 되었다.<sup>41)</sup>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태화관과 탑골공원 등에서 33인 대표의 이름으로 낭독된 ‘기미독립선언서’(己未獨立宣言書)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뜻을 밝히고, 자손만대에 전하여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간직하게 한다. 반만 년 역사의 권위로서 이를 선언하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과 충의를 담아 널리 밝히는 것이다. 민족의 장구한 자유와 발전을 위하여 주장하는 바이며, 인류의 양심에 따른 세계 개조의 큰 흐름에 따라 이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하늘의 명이며, 시대의 대세이다. 인류 공존공생권의 정당한

39) 대한제국 선포에 일본,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직간접으로 승인하였으나 청국은 ‘망자존대’(妄自尊大)라고 하였다. 고종이 감히 황제를 칭하고 제국을 선포하다니 괘씸하다는 반응이었다.

40) 독립신문에서는 ‘오랜 동안 조선이 중국에 예속되어 중국을 상국으로 섬겨왔는데, 이제 조선도 황제의 나라가 되고, 나라 이름도 대한이 되었으니, 이것은 조선 인민의 경사’라고 하였다.

41) 이보형, 「三一運動에 있어서의 民族自決主義의 導入과 理解」,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175-187쪽.

발동이니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한문 투의 문장을 현대문으로 수정-필자)

이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우리는 조선이 자주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고 한 첫 문장이다. 요컨대 민족의 자주독립, 즉 국가의 부활과 대외적 주권 선언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이 담긴 한민족의 인권 선언인 셈이다. 인류의 보편적 목표가 바로 기미독립선언서에 담겨 있는 것이다. 국가 주권은 이미 대한제국 선포 당시와 한청통상조약 체결 당시 매듭지어진 것이지만, 일제의 침략으로 국가 주권이 약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이 확립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는 만국과 동등한 국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여전히 개인의 주권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권이 참담할 정도로 유린되고 있는 자유롭지 못한 나라도 물론 있다. 게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일인독재체제 아래서 나라의 주권이 언제 어떻게 유실될 지, 권력자가 언제 추락할 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나라들도 없지 않다. 그래도 세계의 추세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 그리고 대외적으로 안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다.

기미독립선언은 비록 일제하라는 상황에서 당장은 선언적 의미에 그친 점은 있지만,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에 민주공화제로 명문화 되고,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의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토록 갈망하던 국가주권과 국민주권을 모두 완성하였다. 3·1운동과 기미독립선언서의 깊은 의미는 바로 이런 한민족 역사에 중요한 방점 하나를 찍은 점에 있다.<sup>42)</sup>

## 5. 맺음말

한 인간이 자유를 잃고 감옥 생활을 하거나, 한 민족이 외세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망국노(亡國奴)’가 되는 경우는 역사에 흔히 등장한다. 그러다 끝내 감옥에서 운명하거나 나라와 민족도 영원히 되찾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수 십 년 혹은 수 백 년 지나 자유를 회복하고, 나라를 되찾은 ‘인간 승리’ 혹은 ‘민족 승리’를 보여준 사례도 종종 있다.

멀리 예를 들 것도 없이 한국의 근현대사에 등장한 독립운동가들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한민족이 바로 그런 대표적 사례의 하나이다.

해외에서 나라 잃은 ‘망국노’의 설움을 견디며 독립운동가로서 수 십 년 활동한 이승만과 김구, 안창호, 이시영, 조소앙, 김규식, 이범석, 김홍일 등은 물론 국내에서 총독부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곳곳이 버티며 민족의 혼과 정신을 되살리려 한 송진우와 이상재, 조만식, 한용운, 정인보, 이인, 이희승 등이 그들 중 일부이다. 그들 개인도 위대하지만, 민족도 위대하다.

첫째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삶과 자유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 사고가 바로 그들 개인과 민족의 내면에 축적된 힘이자 저력이다. 둘째는 내외의 시세를 보는 안목과 판단이 그런 의지와 희망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내외 정세와 시국의 흐름에서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보였다면 희망도 긍정도 불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하 송진우가 일제하에 총독부 측의 압력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일 민족독립운동을 추구할 수 있었던 저력은 무엇일까? 첫째는 스승에게서 배운 유가의 전통적인

42) 이민원, 「기미독립선언서에 담긴 자유와 국민주권 의식」, 『자유마당』, 2019년 3월호.

사상, 특히 나라에 대한 충성과 민족의 문화전통에 대한 자긍심, 둘째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근대 국제사회의 법과 도덕에 대한 믿음, 셋째는 현실 국제사회의 동향, 특히 일본의 침략 행동과 세계 각국의 응징에 대한 예상이 그런 믿음과 희망의 바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담양에서 기삼연, 김직부 등 유학자에게 춘추의리에 관한 사상을 배웠고, 부친의 권유로 신학문을 접하고 신문물을 접한 뒤 일본에 유학하여 청년 교우들과 교류하며 세계와 민족의 장래를 고민하였다. 그리고 귀국해 중앙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인촌 김성수와 청년 시절에 꿈꾸었던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꿈을 실현해 갔다. 이후 동아일보 사장이 되어 민족의 지향 방향을 선도하며 항일민족독립운동을 추구해 가면서 민족과 인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사명을 수행해 갔다.

그 바탕에는 그의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과 자유와 평등을 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그리고 한민족의 저력에 대한 믿음이 든든한 힘이 되었다. 그는 일제하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한민족은 우수한 민족으로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인류사회의 보편적 정의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깨뜨린 일본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하에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리더들은 각기 한민족이 독립을 할 기회는 언제인가를 두고 나름의 예견을 하고 있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유인석 등은 청일전쟁에서 패배의 굴욕을 맛본 중국이 언젠가 일본에게 복수할 때라고 여겼고,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활동하던 이상설 등은 러일전쟁에서 쓴 맛을 본 러시아가 일본을 패망시킬 때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한 이승만 등은 유구왕국과 대만 대한제국을 병탄한데 이어 만주를 침략한 일본의 야욕을 잘 모르는 미국이 일본의 공격에 역습할 때라고 생각하였다.

송진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의 신념은 일본필망(日本必亡), 민족불멸(民族不滅), 독립필지(獨立必至)였다. 그의 이런 논거는 중앙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주 들려준 이야기에 잘 담겨 있다.

한국 민족이 일본 민족 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진보된 문화민족이다. 그런데 이를 합병한 것은 불가한 일이며 한민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20년 내외에 일본은 그 보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병합을 유지하려면 만주를 차지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충돌하게 되고, 또 만주를 지키려면 북중지(北中支)를 도모해야 할 터이니 그렇게 되면 중국과는 물론 미국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끝없는 팽창 야욕 때문에 30년 내에 미·영 등 열강과 정면 대결하게 되어 패망할 것이고 한국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sup>43)</sup>

이같은 견해는 후일 이승만도 그의 저서(*Japan Inside Out*)에서 밝힌 바 있다.<sup>44)</sup> 약소해 보인 한민족을 저평가했던 세계인들은 이승만이나 송진우와 같은 이들을 두고 기대하기 어려운 일을 기대하니 미쳤다고도 했을 법하다. 이들을 포함한 국내외 한민족 독립운동가들 모두의 일상은 독립이라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다. 김성수와 정인보는 송진우를 가리켜 자나깨나 독립을 꿈꾸는 ‘독립광(獨立狂)’이라고 칭하였고,<sup>45)</sup> 그들도 ‘독립광’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송진우와 이승만이 예측했듯이 1939년 일본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습하였고 마침내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일본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항복을 하였고, 한민족은 식민지에서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였다.

43) 고하 송진우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이야기숲, 2023, 621쪽.

44) 이승만, 『*Japan Inside Out* 일본 그 가면의 실제-다시는 종의 명예를 메지 말라』, 청미디어, 2007.

45) 柳鴻, 「모세(暮歲)의 회고-고하 송진우 선생」, 『의당 유희회고록(衣堂 柳鴻回顧錄)』, 민족정기 출판부, 1989.(고하 송진우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이야기숲, 2023, 621쪽)

여기서 한 가지, 일본은 패망할 것이고 한국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국은 일본에게 무력으로 보복을 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일본제국식의 무력에 의한 폭력적, 야만적 보복을 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송진우는 미래지향적 극일주의자이자 보편적 인류애를 품은 자유민주주의자였다. 그가 말한 '일본에 대한 보복'이란 실력으로 일본을 능가하는 것, 요컨대 '일본에 대한 선의의 응징'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과거의 원한으로 과거의 적대국을 증오, 적대, 매도하는데 역사와 문학과 예술 등을 동원하여 감정적 보복에 치중하는 국가나 집단을 우리는 흔히 보아왔다. 그러다가 정작 실력 양성 기회를 놓치는 하책(下策)을 취하여 스스로는 후진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반대로 교육, 과학, 산업, 경제, 예술, 문화 등 각 분야의 실력 양성을 통해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온 나라도 있다. 그 결과 과거의 적대국과 세계의 열강을 추월하여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경우도 있다. 고하의 꿈이 실현된 최근까지의 한국이 그렇다.



<참고문헌>

-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獨立을 향한 執念: 고하 송진우 일대기』, 이야기 숲, 2023
-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편, 『巨人的 숨결』, 이야기 숲, 2023
- 국사편찬위원회 편, 『광복 70년, 독립운동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國史編纂委員會, 2016
- 국사편찬위원회 편,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로 보는 1919, 그날의 기록』 (1-종합편), 국사편찬위원회, 2019
- 권대웅·박결순, 「3·1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회 편, 『한국독립운동사강의』), 한올아카데미, 1998
- 김광 저(이민원·양수지 역주), 『나의 친구 윤봉길』, 선인, 2017
- 김명구, 「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와의 상관성」, 『거인의 숨결』, 이야기 숲, 2023
- 김형석,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동문선, 2024
- 김학준, 『고하 송진우 평전 : 민족민주주의 언론인 정치가의 생애』(동아일보사, 1990)
- 박찬욱, 「자유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송진우의 헌신과 사상적 실천」,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의 민족운동: 3·1운동에서 건국운동까지』,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특별 학술회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24.2.19.
-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 신복룡, 「3·1운동사연구의 몇 가지 문제점」, 『한국정치사』, 박영사, 2003
- 신복룡, 『해방정국의 풍경-인물로 돌아보는 대한민국 현대사』, 중앙북스, 2024
- 심지연, 『한국민주당연구』 1, 풀빛, 1982
- 심지연, 「고하 송진우」, 『한국현대인물론』 1, 을유문화사, 1987
-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II, 한길사, 1990
-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혜안, 2023.
- 이민원,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현대사 광장』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3
- 이민원, 「기미독립선언서에 담긴 자유와 국민주권 의식」, 『자유마당』, 2019년 3월호
- 李炳憲, 「내가 본 三·一운동의 一斷面」,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 이보형, 「三一運動에 있어서의 民族自決主義의 導入과 理解」,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 이승만, 『Japan Inside Out 일본 그 가면의 실체-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청미디어, 2007
- 이정은, 「3·1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론』, 국사편찬위원회, 1996
- 이희승, 「내가 겪은 三·一운동」,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 주요한 編著, 『安島山全書』, 三中堂, 1963
- 崔炯鍊, 「三·一운동과 中央學校」,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 프란크 볼드윈, 「일손, 민족자결주의, 三·一運動」, 『三·一運動50週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 玄相允, 「3·1운동 발발의 개요」, 『思想界』 1963년 3월호
- 黃枝連, 『天朝禮治體系研究』(상)·(중)·(하), 중국인민대학출판부, 1992, 1994, 1995